

제주와 대만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전망

정형아(서울여대)

I. 들어가며

현시대의 성찰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또는 현재 상황의 풀리지 않는 여러 모순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곤 한다. 1945년을 전후로 하여 세계는 '냉전'이라는 이름의 시대로 명명되었고, 대부분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그 이름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전후로 하여 세계는 '냉전'의 시대로 진입했다고는 하나, 이전시대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어감의 이 단어가 덮어버리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발표자는 적어도 194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을 '냉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적용시키기에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즉 '냉전'과 좌우이념의 대립이라는 서구적 개념만으로 평가해 버렸던 많은 현상 속에는 오히려 보수적 사고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와 대만을 통해 볼 수 있는 전후초기 동아시아의 상황은 아직까지 구체적 접근과 연구가 부족했던 부분이다. 전후 두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이 제주의 4.3사건과 대만의 2.28사건이다.

대만 2.28사건은 우리나라의 5.18광주민중항쟁이나 제주의 4.3사건과 자주 비교되는 대만민중의 정부에 대한 항쟁사건이었다. 실제로 대만 2.28사건은 배경이나 처리과정, 사건 후의 지역의 상황과 영향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5.18광주민중항쟁보다는 제주 4.3사건과 더 유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2.28사건이 5.18광주민중항쟁과 진행되어온 교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제주 4.3사건과의 교류성과는 매우 미약하다.

두 사건은 모두 공산당 선동설로 일축되어 오랜 시기 언급될 수 없었던, 냉전이라는 시대상황 아래 묻혀있었던 사건이며, 탈냉전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평가와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제주와 대만은 이러한 유사한 역사 경험을 둘러싸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교류를 통한 연구방법과 성과의 공유는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교류의 필요성을 두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공동 연구 방향에 관한 제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 2.28사건과 제주의 4.3사건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사건은 각각 1947년과 1948년에 발생하였다. 이 시기는 해방 후 1년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로, 그 기간에 이 지역의 상황은 이 사건들이 결코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한다. 두 사건은 모두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새로이 통치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치자의 모습을 통한 시대와 상황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일본 식민당국자가 떠나간 후 권력을 이양 받은 새로운 통치 집단이 지배력을 확립해 나가려는 가운데 나타난 강압적인 통치행태로 통치 집단과 토착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대만에서의 통치 집단은 국민정부와 그들이 파견한 진의(陳儀)를 대표로 하는 대만행정관서이고, 제주에서의 통치 집단은 미군정과 이승만정부가 된다. 이들 새로운 권력 주체자들은 자유와 민주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보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는데, 그들만이 권력을 장악하고 누리려는 전통적인 권력 주체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권력 주체자의 특성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전통 왕조체제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분 질서와 파벌, 특권을 중시했던 권위적인 권력주체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억압과 차별적인 통치를 보인 식민통치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19세기 말 이래 동아시아에서는 근대화라는 변화와 더불어 국민이 출현하고 민중의 역량 또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의 의식과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권력주체자들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폭력이라는 주제이다. 대부분의 제주 4.3사건의 연구자들은 그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대만 2.28사건 연구자들은 대만 2.28사건에 대해 국가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현재 대만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입장을 거부하는 대만인들의 입장에서 중국대륙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사실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에 근거해서 볼 때, 단지 국가폭력이라는 용어가 가장 쉽게 두 사건으로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폭력이라는 용어는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단순화 시켜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본다. 이에 발표자는 두 사건을 함께 묘사할 수 있는 용어로서 국가폭력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더 적절한 용어 모색을 통한 두 사건의 발생배경을 시대의 연속성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여 고찰해 보자고 제안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듯, 권력의 주체자는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 집단인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폭도' 혹은 '반도'로 규정하고 그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명분을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찾았던 것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이 사건들에 대한 재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시각은 버렸지만, 이 사건에서 보인 대립의 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도 과제로 남았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사건의 배경에 대해 많은 다른 입장의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통치당국의 정치부패와 경제 쇠락, 문화충돌, 파벌투쟁, 일본지배의 잔재,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 대만인의 새로운 통치자들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등.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는 제주 4.3사건의 발생 배경에 관한 연구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I. 나오며

사건의 원인과 처리과정에 대한 개별연구에 대해서는 제주 4.3사건이나 대만 2.28사건 모두 이미 전문적인 연구자들을 배출하고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의 깊이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대만의 2.28 사건에 대해 제주 4.3사건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한 원인은 아마도 관심과 지원일 것이다. 대만 2.28사건이 오늘날 이루어낸 성과는 단지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상조사와 연구,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낸 것은 아니다. 처음 시작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한 문제제기와 연구논문이었고 이것이 대중의 많은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고, 또한 이러한 지원과 관심은 다시 연구를 촉진시켰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이 점은 발표자가 대만과의 적극적인 학술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연구와 교류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전후한 시대에 대해 주목할 필요를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권력 주체자들에 의해 주도된 폭력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시기의 한 현상이었다고 단정하여 바라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 특히 동아시아라는 지역 무대 속에서, 그리고 장기간의 역사진행과정 속에서 이 두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몇 가지 언급한 것처럼 제주와 대만은 약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 정치배경은 유사하나 다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후시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스스로 놓칠 수 있는 관점이나 연구방법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교류의 유용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은 자국 내의 지역갈등이나 정체성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동의 역사인식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